

배드로전서 2 : 1 ~ 3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까? 성장하는 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키가 빨리 크는 사람은 20세까지, 오래 크는 사람은 30살까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혹시 신앙 생활 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나는 영적 성장을 별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큰 영적 병에 걸렸든지 기절했든지 그거는 안 맞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걸 사람 눈, 코, 입 있는 걸 사람은 후회하지만 날마다 늘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화장품 발라도 늘어갑니다. 그건 늘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날마다 성장해야 하나면 영적으로 성장 되어야 장부같이 되어야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돼요. 어린이의 특징은 순박한 좋은 것도 있지만 잘 넘어지는 겁니다. 혹시 세상의 일을 보든지 교회에서든지 믿는 사람을 보든지 자꾸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내가 아직도 강건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영적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어른이 되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남을 돕고 섬길 수가 있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장되어 좀 남을 돕고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참고 기다립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렸으니까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병들어 있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나도 교회에서 쓰임 받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이런 소원이 있어야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능력과 풍성을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다 달라요. 지금은 영려가 안 돼요. 모든 게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아 이것이 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되고 성숙 되어야 달라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하느냐 하면 **1: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게 거듭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니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하던 버려야 될 게 있다. 이거 완전히 버려라. 흠 묻은 걸 털듯이 벗어버려라.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뭘 버려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버려야 돼요. 믿지 않을 때 하던 거, 이제 악한 거, 죄짓는 거, 나쁜 거 이거 버려라 는 것입니다. 사모할 거는 뭘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요?

아기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죠. 성장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응답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악독, 악독이란 말은 악의를 잇는 마음에 대한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믿지 않는 죄악 된 이 모든 걸 버려라. 그랬어요. **엡4: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란 믿지 않을 때 사람. 여러분도 내가 믿지 않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죠? 버려진 게 있을 것이고, 또 끈질기게 아직도 따라다니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것까지 다 벗어 빼버려라. 함당하지 않다. **‘골3: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때기인 줄 아냐? 이제 맛 보여줘야 겠다. 맛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버리세요. 이 악이라는 건 마음속에 악한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고 남을 나쁘게 하고 비방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악한 마음. 이것이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영적 변화가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 육체도 있고 행동도 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영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기독교만 본질의 변화 영적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건 수양이고 윤리, 도덕 수준이지 영적 변화가 없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갈5:23절에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감나무에 감이, 배나무는 배, 사과나무는 사과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쉰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계속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게 죄를 짓는 거고 불의 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중 하나가 양선입니다. 선한 것 좋아하는 열매가 맺어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선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충만해서 나를 주관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도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사랑하고,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악한 사람들을 섬기고, 용서해 주고, 욕하는 것도 축복해 주고, 너 원수가 욕하면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랬죠? 변화되고 이렇게 선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 밑에 있으면 악이 자꾸 생기니까 악한 걸 말하게 되고 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 받았기 때문에 모든 악독을 다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악질적이고 불순한 동기로 남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모함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속이는 게 있어요. 속이는 게... 믿는 사람도 속인다고요...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했는데도 그게 다 악한 것이죠.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저 북한 김정은은 백성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 알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다 악한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마귀의 특징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실한 자에게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습관처럼 버릇처럼 거짓말하는 습관이나 마음이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고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

선이 있어요. 위선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 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나쁜 거 하고.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예.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연극을 잘하는 건 직업적으로 연극인이 돼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연극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극 잘하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사람들한테는 거룩하게 하고 웃도 거룩하게 입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서는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재물과 명예보다도 지킬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본다할지라도 정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일어나서... 정말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은사가 있고 발견된 사람이 잘하면 아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새사람만 좋아해 이런 거 여러분은 웃지만 목회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뺐다니? 내 위치를 뺐다니? 그게 다 옛 습관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가 어디 있고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함께 더 잘할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지 시기 이런 건 하나도 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첫째 비방하는 말,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둘째 비방할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어요. 그리고 남을 비방할 만큼 내가 거룩하고 온전합니까? 그럼 뭐예요? 비방할 만큼 내가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심판할 권세도 없고 그 사랑하는 일을 100% 내가 다 이해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어렵고 아파하면 그거는 누가 한 잘못입니까? '나는 사람 딱 보면 안다.' 월 딱 보면 알아요. 이미 딱 보고 이제 선입견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아주 굉장한 영적 지식이나 분별력 있는 거 같지만 그게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그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남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고 죄악에서 나오는 악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용기 북돋아 주고 또 정말 잘못이 발견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맞는 거지 그냥 한 번도 본인한테는 말안 하고 돌아가면서 다 소문만 다 내어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고 온 소문이 나고...교회는 입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또 아무 책임 없다. 그렇게 넘어뜨려 놓고 자기는 찬송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고 이래야 되는데...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이는 젖 먹을 때 막 따지지 않습니다. 영양가 몇 프로 안 따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종합 영양소가 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하나님 일도 하고 응답 누리게 되고.. 제가 뉴라이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은 만큼

주십니다. 제가 전에는 이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다 감당합니다. 주서 보세요. 내가 다 감당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안 속더라고요. 감당한다 해도 안 믿으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감당할 만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축복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중간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사모해라. 말씀도 사모하고 성경 읽기도 사모하고 묵상하기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많이 받고 영적으로도 이기고 기쁨도 10배나 더 넘어 감사하고 기쁨이 많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레11: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 때 애굽에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벧전1:13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없고 늪음도, 가난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봤다는 말 참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의 맛을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의 맛을 알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의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의 맛을 알면 세상에 전도의 맛보다 재미있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영혼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훌륭하게 되는 것도 행복하죠. 그거 이상으로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은혜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를 맛보면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걸 잘 못 버리느냐 영적 성장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하면서 어려움만 당하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왜 애굽의 맛을 자꾸만 되새기는 거야... 믿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돌아가는 것은 잊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사모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우리가 세상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 성장한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